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19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루가복음 11:37-12:12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루가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 루가 복음 11:37-12:12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대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소유물이나 탐욕, 탐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양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의 논의를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 37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바리새인이 그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 앉았을 때, 바리새인은 그가 저녁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제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보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바치고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여긴다. 너희는 다른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야 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화가 너희에게 있도다. 너희는 무덤 표시가 없는 것과 같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위를 지나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대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전개를 하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 수업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루가와 코퍼스에서 항상 부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루가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예수를 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나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장에서 조금 앞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들이고 가셨지만, 그는 곤경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환대의 문화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에게는 특권이었고, 예수님에게도 그의 집에 손님이 되는 특권이었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손님으로 집에 갈 때는 실제로 호스트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야 모든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매우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뒤집어서 누군가의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지만, 그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쁜 손님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문화에 따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특정한 기록인 37절에서 54절에서 누가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한데 모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항상 두 당사자와 예수 사이에 어떤 종류의 소동이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고립되는 당사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nomikos 또는 변호사라고 불리는 이들 중 일부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때로는 누가가 그들 모두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예수님과 나머지 공동체를 위해 특정한 문제 제기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변호사와 일반 바리새인을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것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경연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루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예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사이의 식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사역이 때때로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잘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식사 시간은 복음서 전반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누가의 담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와 지역 사회 활동 측면에서 초기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식사 시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글썄요, 문화적으로 보면 큰 일입니다.

저는 이집트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집트 음식도 좋아하지만,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는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첫째, 집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거나 그들이 당신을 알아가고 그들의 서클에 데려오는 데 매우,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이 진실이 됩니다. 특별한 손님으로 집에 가면 그들은 많은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초대한 친구와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착각입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모든 중동이나 아랍어권 문화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소리야? 미국에 있는 줄 알아? 집에 와서 식사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 와서 모두를 만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내부 서클에 들어올 기회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와서 더 많은 바리새인과 더 많은 율법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것을 잊지 말자.

마셜은 관찰에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할지 생각할 때, 마셜은 일반적으로 아침, 오후, 저녁에 제공되는 식사 종류를 상기시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상류층이 무엇을 할지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누가 사용한 언어를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마도 브런치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중심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손 씻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손 씻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baptizo라는 단어, 동사 baptizo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물에 담그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물에 담그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바리새인, 그리고 집안의 율법학자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는 손님이고, 관습에 따라 그는 주인의 기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 관습의 참여 규칙입니다. 그것은 환대의 주요 관습이며, 이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손 씻는 것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유대교 전통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특징지어지는 방식으로 물에 담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유대교 종파가 식사 시간에 지키는 특정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aptizo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담그는 것은 신체적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다면 손을 씻어야 하고 로션을 많이 발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점은 신체적 위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대에 따른 의식적 씻기 또는 담그기입니다. 이제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 2-128을 읽어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을 읽는 학자라면, 그리고 학자가 아니라면, 실례지만, 요세푸스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죄의 공동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쿨란 두루마리의 관리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식사 전에 그냥 담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몸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욕을 합니다. 그게 그곳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전통은 당신이 물에 담그고, 손을 내밀면 깨끗해지고, 그런 다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이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을 인그룹으로 데려오고,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그룹의 수용을 얻습니다.

그것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인그룹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루가가 묘사한 것처럼 물에 담그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청소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실제로 청소한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정화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걸을 정화하고 속은 정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그는 것 ( baptizo )에서 그리스어로 정화하는 것(cleaning)이라는 단어로 밀어냅니다. 순수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예수의 행동은 분명히 그를 외부 집단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관찰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는 그것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손님이고, 그는 이제 주인의 관행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루크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 손님으로서 그는 누군가의 집에 서서 그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바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하시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파티를 책임집니다. 왜?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의식적 정화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기 위해 교훈으로 사용하실 무언가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에 관심이 있는 엄격한 유대인 율법 준수자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옳은 일로 여겨야 할 무언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 안팎의 언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루크는 그가 집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그가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잔의 안과 밖, 그리고 여기서의 외부와 내부의 표현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룹 내 구성원으로 원했거나, 예수를 특별 손님으로 초대하여 동지들과 교제했다면, 예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대화는 예수가 그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불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할 것이라면, 예수는 이미 자신을 주님으로 확립하고 지휘를 맡고, 바보들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상으로 그는 가능한 가장 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차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나요? 그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들이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준 그 칼럼에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세 개의 기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이 밖에서 하는 일, 그들이 소홀히 하는 일, 그리고 판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바친다. 43절,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44절,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화가 있도다. 너희는 무덤에 표시가 없구나. 그리고 그는 너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속으로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비통한 진술에 따라 그들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한다고 말한다. 판결은, 40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길을 만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를 주라, 속에 있는 것들이여, 보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도다.

그러면 두 번째 판결은 당신이 이것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신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십일조와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해 두겠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약초 중 일부는 십일조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가 말하는 약초나 사물, 십일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누가가 언급한 약초 중 일부는 실제로 면제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십일조의 일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요점은 십일조에 대해 세심한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높이고 정의와 신에 대한 사랑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진술은 이제 그가 말했듯이,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지켜야 하며, 즉 위선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가 길을 인도한다면, 사람들은 내면이 외부만큼 깨끗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면의 정화가 외부의 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눈에 띄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눈에 띄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마치 쇼맨십과 같습니다.

환대의 규칙을 뒤집어 바리새인들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시점에서 그를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을 촉발합니다. 하지만 다툼의 뼈대는 무엇일까요? 다툼의 뼈대는 이처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씻고 손을 적시고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들은 신학적 대화를 나누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 대화가 계속되고, 그들은 안녕이라고 말하고, 아마도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고 갈 것이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율법학자는 그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멋진 저녁 식사 시간인데,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제가 율법 학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도 모욕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는 말했다, 또한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을 만지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너희는 증인이 되고, 너희 조상들의 행위에 찬성한다. 그들은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부터 나누어진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아벨의 피에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에 대하여 고발될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너희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고 스스로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어조로 율법사들에게 돌아섰고, 이 질문을 한 율법사가 지저분한 상황에 스스로를 소개한 것 같다. 그는 너희가 꾸지람을 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 준수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혹한 짐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 아벨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증거해야 했지만 죽임을 당한 사람, 역대기 24장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스가랴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그는 형제의 질투와 분노로 인해 흘린 피인 아벨의 피를 언급합니다. 그는 변호사의 반응이 이러한 감성 중 일부를 촉발하여 매우, 매우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의 지혜로부터 배웠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신의 지혜라는 책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누가는 신의 지혜를 일반적인 원리로 언급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문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저녁 식사에 대한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분은 그들을 적절한 장소에 두셨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이 매우 나쁜 시간이 됩니다. 그분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곳에서 떠나시자, 53 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압박하고 많은 것에 대해 말하게 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를 것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쎄요,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에게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당신의 모든 친구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와서, 당신의 친구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온갖 가혹한 말을 한 다음, 그냥 움직였습니다. 누가는 주인이 예수에게 대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엿보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그를 곤경에 빠뜨린다면 그가 무엇을 할지 보죠.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관찰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잘못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계략과 책략에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그들이 곤경에 처해 통치자와 권세자들 앞에 불러갈 때마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짓밟고 있을 때,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한 말은 빛 속에서 들릴 것이다. 그리고 비밀한 방에서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1-3절에서 경계하라는 부름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 중 일부를 다시

언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위선자이며 그들의 위선이 폭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위선의 독이 있거나 부패한 본성을 설명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본성이 실제로 엄청난 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우, 매우, 매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활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부패의 위선과 부패한 본성에 대한 경계를 넘어, 그들이 주의해야 할 다음 사항은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것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경고한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네, 말씀드립니다. 그를 두려워하세요. 여기서 그의 요점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기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부패시키려고 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어떤 종류의 문제에 휘말릴까봐 당신의 입장을 고수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바라는 잘못된 일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실 다음 말씀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뉘에 팔리지 아니하냐?"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찮은

새들은 값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 하나도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졌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값싼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 일부는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짝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방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렇게 싸고 아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도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도전은 올 것입니다.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게 구약성경의 일부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최악의 형태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직면하여 위안과 고요함을 가져다줍니다.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건너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현장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거하고, 내가 그 집에 머물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구절의 네 번째 요점은,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8절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요, 인자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자마다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예수께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참된 증인으로 굳건히 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영으로서 참된 증인으로 그곳에 서고 싶어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군중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속일 방법을 찾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그들도 속일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든, 어려움에 처한 법정에서든,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설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도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종말론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10절이 거기서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그 특정 구절은 예수께서

여기저기서 그 언어를 사용하신 바젤 논쟁과 함께 나온다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사람들이 굳건하고 하나님께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증인은 재판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대중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늘 법정에서 보답받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자나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당신의 일을 하면서 진실하고, 확고하고, 일관된 제자가 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입니다. 준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11절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관원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변명할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바로 그 시간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에 대해 몇 가지를 명확히 해 두겠다.

이제, 저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듣고 계신 오순절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가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요일 설교를 준비해야 할 때,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학교에 가지 말거나 신학 교육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가 되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진실을 위해 서 있고, 참된 증인이 되어 권위자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말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표현하거나 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통치자와 권위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던져지는 질문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걱정해서 예수님의 참된 충실한 추종자가 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증론과 신앙을 어떻게 옹호해야 하는지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 따라가세요. 진정한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디에 서 있든 진정한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이 말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 회당 앞에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회당 앞에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통치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권위자와 통치자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 권위자나 통치자, 또는 당신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 앞에 끌려갈 때나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가 되는 이유로 당신의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을 곳으로 끌려간다면

, 성령으로 당신이 대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은 당장 내일의 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즉시 당신이 말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제자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이에 그는 제자도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차례로 상상될 것이고,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나타날 핵심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 역사에서 항상 사실이었던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항상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 철학에서 그것은 고귀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옳은 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동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삶에 접근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 배경에는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이 비틀거릴 곳을 찾아 여러분을 향해 비난할 기회를 노리는 거짓된 발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굳건하고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저는 중동에 있는 여러분, 남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선교사로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주로 무슬림이 사는 환경에서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의를 위해 고통받거나 죽는다 해도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예수 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루가복음 11:37-12:12입니다.